

오늘 공식회담... 의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최우선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인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제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도 사전에 실무 차원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이 이를 승인하는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 정상간 '대화'를 통해 의견을 집약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망=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공식 회담은 3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에서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박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배석자로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경우 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배석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배석자가 누가 될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거론할 듯 합의사항 담례 만찬 때 발표 가능성

지난 2000년 1차 회담에서는 1차례 정회를 거쳐 185분간 '마라톤 회담' 끝에 6·15공동선언에 포함될 5개 항의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오전의 경우에는 상대측에 대한 탐색전을 벌인 뒤 오후 회담에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독대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공동 합의사항이 도출될 경우 두 정상은 이날 밤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공전에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답례만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뒤 '평화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 의제=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에서 평양 출발에 앞서 밝힌 '대국민 인사를 통해 "여러 의제들이 논의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사보장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보

(一步) 전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평화 의제의 첫 단추는 군사적 충돌이 잦아 최후의 방전지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서해안 접경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민간차원에서만 공동 이용기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고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두 정상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협력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 ▲북한내 각종 인프라 구축 ▲농업·보건 의료 지원 등의 세부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속적인 남북 쌍방 최고위층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도 최우선적인 의제로 올라왔다. 김 위원장의 서울담방포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불투명하다.

/평양=공동취재단

## 2000년엔 시종 웃음에 당당

## 2007년엔 기운 없고 무뎡뎡

### 김정일 건강에 관심 집중

2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예상 외로 무표정하고 병약해 보여 눈길을 끌었다.

7년 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받고 건강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영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평소 흔히 입던 연한 갈색의 점퍼 차림에 안경을 낀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무개차에서 내려 다소 서두르듯 자신의 앞으로 걸어왔지만 노란 줄을 그은 위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두 다리를 양 어깨 너비 만큼 벌리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자세로 서 있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했던 것과 달리 노 대통령 내외와 포옹을 하지 않은 채 악수만 했다.

악수도 김 전 대통령과는 두 손을 맞잡고 열정적으로 한 것과 달리 노 대통령과는 미소를 띤 채 한 손으로 서너 번 흔드는 등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다.

의장대 사열과 평양시민들에게 답례를 보내는 의전행사 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는 표정은 별로 볼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다소 경직되고 실무적인 모습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평양을 찾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왼쪽)과 7년 후인 2007년 10월2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모습. /연합뉴스

아왔던 김 전 대통령과 달리 노 대통령이 자신보다 네 살 손아래라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김 위원장의 양 옆 머리가 다소 허영해 샌데다 머리 윗 부분이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을 주었고 얼굴에도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 7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했다. 지난 7월 초 평양을 방문한 양재호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보다도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5월 독일 의료진으로부터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뒤에 더 예전과 같고 심장 등으로 인해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 盧 대통령 평양서 무개차 퍼레이드

### 中 장쩌민 방북 후 6년만의 사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내 서열 2위 이하 헌법상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동승해 인민문화공전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벌어진 4·25문화회관까지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이례적으로 무개차 퍼레이드를 벌였다.

노 대통령은 2일 오전 11시30분경 평양에 도착한 직후 인민문화공전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미리 북측이 준비한 오픈형 무개차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미리 나와 대기하던 북측 여성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은 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무개차에 올랐으며 남측 수행단과 경호차량이 뒤따랐다.

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과 무개차에서 채로 서로 얘기를 나누며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카퍼레이드는 평양시 중구역 인민문화공전 앞에서 평양시 대성구역 4·25 문화회관까지 6km에 걸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20분

남짓 이뤄졌다. 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은 카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평양 시내의 건물과 지리, 최근 날씨 등을 화제로 담소를 나눴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이 탄 무개차는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인민문화공전에서 보통강변을 달리다 보통문을 지나 만수대거리로 방향을 돌려 만수대의사당 앞을 통과한 뒤 대동강과 나란히 뻗은 승리거리와 칠성문거리를 거쳐 미끄러지듯 달렸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평양시 연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과 양복이나 인민복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남성 등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나와 손에 든 붉은색과 흰색 '꽃술'을 흔들며 환호와 함께 환영했다. 주민들은 "만세 만세"나 "조국 통일" 등을 연호했다.

노 대통령은 무개차 위에서 시종 웃은 미소를 띤 채 손을 흔들며 환영을 지르며 환영



2일 낮 평양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탄 무개차를 향해 꽃술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하는 주민들에게 답례했다. 북한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때도 무개차를 이용한 퍼레이드를 남측에 제안했으나 남측이 경호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의 오픈카 퍼레이드는 2001년 9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

가주석 방북시가 유일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영접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했을 때는 평양시민 60만 명이 연도에 나와 환영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평화 미루지 말자" 평화선언 성사 의지

### ■ 노대통령 평양 도착 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양시에 도착해 발표한 북한동포와 평양시민들에게 전하는 서면 도착성명을 통해 "북녘 동포와 평양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북녘 동포 여러분께 남녘 동포들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면서 "진심과 성의로써 정상회담에 임하겠으며, 7천만 겨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한 뒤 "북녘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함께 뜻을 모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날 출발에 앞서 청와대에서 밝힌 대국민 인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좀 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의제들이 논의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기자 who@kwangju.co.kr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21일 파이널특강** 3주 완성  
 "출제유형별 핵심요약 및 실전대비 최종정리"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7도청 앞 진일빌딩 5층)  
 첨단점 ☎ 971-0002 (백마대 앞점 경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당뇨병**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기적의 물질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안내서 신청 문의◎  
 ☎ 070-7012-0246  
 H.P. 017-291-3115  
 www.cjyc.co.k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경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개발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초·중등생 개인증독치로 및 발표력 향상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IQ(지능)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위 두동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실)  
 ○신청인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고학년, 태권도도장, 가·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정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향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